

박종효 ‘일하는사람들 협동조합’ 이사장

‘즐거운 상상, 그 이상의 변화’… 마을에서 답을 찾다

소년은 힘이 빠졌다. 저수지 건너편으로 저만치 앞서간 친구의 장구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짜낼 힘도 없었다. 힘 빠진 팔과 다리론 더 이상 물장구질이 되지 않았다. 평소 한번 저수지에 들어가면 왕복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던 저수지였다. 두려웠다. 몸에 힘을 빼고 물을 베개 삼아 하늘을 봤다. 쥐가 날 것 같던 다리의 통증도 멈췄다. 누워서 본 하늘은 유난히 파랬다.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아빠도 생각나고 재밌게 놀던 추억, 친구들이 생각났다. 파란 하늘 아래 지나온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로부터 40년 쯤 지났다. 어른이 된 소년은 그날 어떻게 저수지를 빠져나왔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저수지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렴풋이 ‘암용추 저수지’ 정도 이름을 떠올렸다.

2016년 10월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2회 충북사회적경제대회 및 제1회 충북사회적경제상 시상식이 열렸다. 주관단체는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대표 윤석위 외 4명). 이곳은 도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시니어클럽·자활협회·협동조합연합회 등 10여 개의 지역협의체와 사람과경제·NGO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학술 및 연구기관 등 31개 단체가 모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곳이다. 이날 행사는 충북의 사회적경제 주체 및 유관기관 794개소, 1

만 5,700여 명이 이룬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의 백미는 제1회 사회적경제상 시상식. 훗날 더 무수히 많은 훌륭한 업적을 가진 활동가가 나오더라도 이날 수상자는 '제1호'라는 역사성, 최초성의 수식어를 가지게 된다. 가히 가문의 영광이라 하지 않을까. 이날의 영광은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을 닮은 사람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 이사장 박종효. 까무잡잡한 피부, 곱슬머리,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치아를 가진 모습은 영락없는 마이콜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가루 가루 고춧가루).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공탄에 끓여야 제 맛이 나요~"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라스베이거스 서커스단 소속의 마이콜이 부른 공전의 히트곡 '라면송'의 가사다. "후루룩 짭짭"에 이어지는 "가루 가루 고춧가루"의 후렴가락이 특히 구성지다.

박종효 이사장의 삶도 '라면송'의 가사를 닮았다. 맛좋은 라면이 있는 살맛나는 세상을 바랐고, 구공탄처럼 라면의 제 맛을 내게 하는 존재다. 그에게 물었다. "지금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받는 그는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저수지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본 어린아이처럼 지나온 시절을 복기했다.

그가 말했다. "하나 둘 모든 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마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노동운동을 하는 시절에는 국가와 사회 구조에 대해 따지고 바꾸기 위해 행동했다. 사회적기업을 고민하던 시절에는 로컬, 즉 지역을 고민했다. 지금은 마을이다. 마을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삶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것을 고민한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랬다. 그의 삶은 20대 시절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정치운동을 시작으로 여러 변화의 단계를 거쳤다. 30대 시절에는 저소득층 자활 기관과 사회적기업을 거쳐 40대에는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로 물 흐르듯 이어져왔다.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가 말한 것처럼 면에서 시작한 활동이 이제 점으로 기반이 옮겨졌다고나 할까.

박 이사장이 현재 서 있는 곳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이다. 그는 현재 이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 딱히 뭐라고 개념이 서지 않는다. 포털 'DAUM'에서 검색하니 "인재파견, 아웃소싱, 헤드헌팅, 인사컨설팅, 취업 가이드 수록"이란 설명을 단 단체가 제일 상단에 검색된다. 그래서인지 박 이사장도 이 대목에선 웃는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나도 헷갈린다. 단체 이름만 보면 애매하다. 아마 용역회사라고 생각하겠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은 2014년 창립했다. 햇수로는 올해가 3년째다.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하는 일과 소속 단체를 보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명쾌하게 다가온다. '일하는사람들'은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5곳, 작은도서관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주 성화동 LH단지에 마을 공동부엌을 운영한다.'일하는사람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LH율량 9단지 밤나무지역아동센터, 가경동 가로수마을아파트, 성화동 LH 1단지와 4단지, 노리울지역아동센터 등 5곳이 있다. 이곳을 바탕으로 총 6곳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선 공부방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에는 급식활동까지 병행한다.

주민들과 함께 영화제를 만들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논을 만들어 벼까지 심는다.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적인 세재를 만들기도 하고 한여름 밤 영화제를 개최한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다. 성화동과 율량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여는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아파트에선 별도의 축제도 개최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활동도 다양하다. 반찬가게도 운영하고 나눔 장터도 개최한다. 아파트별로 연간 3~4회 개최되는 나눔 장터는 매회 5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다.

교육사업도 활발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들 스스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했다. 지난해 제작한 카드뉴스의 주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찾아 알리는 것이다. 공부방에는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과 아이들을 일 대 일 멘토로 연결해 함께 공부하고 고민거리를 나눈다.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6곳은 말이 '작은도서관'이지 규모는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책도 많고 환경도 깔끔하다.

3년 전부터 마을주민들과 함께 한 아파트 벼농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해 흙을 채우고 이곳에 벼를 심었다. 누가 감히 도심 아파트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와 규모는 작지만 누렇게 익은 벼가 출렁이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운영방식도 독특하다. 연공서열도 없고 직책급도 없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의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보직도 파괴된다. 공직사회나 대부분의 기회는 일단 한번 올라간 직급 사다리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선 보직이 순환된다. 센터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반 직원에서 센터장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순환한다.

지난 4월에는 성화동 LH임대아파트 내에 공동부엌을 열었다. 공동부엌은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조리하고 작은 파티를 열 수도 있다. 때론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눌 수도 있다. 아이들을 상대로 식생활 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의 조합원은 20여 명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일하는사람들'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영 등 모든 면에 마을주민의 참여가 활짝 열려있다.

면에서 점으로…마을이 답이다

박종효 이사장은 왜 마을에 집착하는 걸까? 그는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규정한 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피곤하다. 사회를 바꾸려 해도 이런 사회체제에서는 엄두가 잘 안 난다. 그런데 마을은 다르다. 일상적인 삶이 이뤄지고 사람관계가 작용한다. 거대한 사회는 한 번에 바꾸기 어렵지만 마을은 다르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마을에 대해 발언하고 단결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삶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동네다."

다시 40년 전 소년시절로 돌아가 본다. 마이콜을 닮은 아이의 고향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지금은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해 있는 계룡대 지역이 그의 고향이다. 어린 시절 박 이사장은 이곳 암용추 저수지에서 멱을 감고 '국군장병체력단련소'라 이름 붙은 군 골프장이 있는 괴목정에서 뛰어 놀았다. 이곳에서 중학교 3학년 까지 살았다. 하지만 계룡대가 들어서며 강제이주를 당했다. 어느새 그가 살던 고향은 철책이 쳐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됐다.

순박(?)한 박 이사장은 철책에 막힌 뒤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하지만 "계룡산에서 10년"을 채워야 기를 받을 수 있는 무속인들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찾는다.

한국 사회 남성들 사이에서 믿지 못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나이다. 군대 이후 사회생활을 통해 만나는 남성들은 은근히 상대방 나이에 맞춰 나이 한두 살 예사롭게 올려 먹는다. 박 이사장도 꼰대일까? 그도 호적은 1969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태어난 해는 1968년이라고 말했다. 계룡대가 들어선 이후 집은 대전으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재수 끝에 서원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교에 입학해선 그 시절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운동권이 됐다. 10년 전 까지만 해도 자주 사용되던 386·486쯤 되시겠다. 박 이사장은 아쉽게도 마이크 울렁증이 심해 학생회 선출직 간부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자랑하는 학생회 최고의 경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그에 따르면 당시 동아리연합회 문화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학교 비운동권학생들에 맞아 모두 사라졌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로 투표로 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사족을 달았다. 1993년도에 학교를 휴학하고 1994년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활동을 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동당의 전신으로 보면 된다. 이때 언론활동도 했다.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일노동뉴스 지사를 맡아 노동현장에 배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A4 책자 형식으로 신문이 나오는데 지역 면은 빈 공간으로 내려왔다. 여기에 직접 기사를 작성해 지역 면을 채워 노동현장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문의 발행인은 노회찬 현 정의당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시작한 활동은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삶으로 연결됐다. 1995년도 '청주노동자의집' 활동을 거쳐 민주노총의 상근 활동가가 됐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이중 하나가 현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의 김재수 대표다.

1997년 대한민국을 파란으로 몰아넣은 IMF외환위기가 터졌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액임금을 받았던 은행 직원 등 화이트칼라 노동자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거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실직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때 지역에 충북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꾸려졌다. 모(어머니) 단체는 충북경실련에서 맡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노동운동가의 삶에 변화가 왔다. 박 이사장은 민주노총을 떠나 충북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국가를 상대로, 사회를 상대로 투사로 살았던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투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경제적 삶의 대안을 찾아 나서야 했다.

2001년 7월 청원지역자활센터가 생겼다. 이 단체의 상근자가 됐고 일거리



를 찾아야 했다. 고물장사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재활용사업부터 집수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재활용 사업은 이름처럼 고상하지 않았다. 직접 전자제품을 분해해 성상별로 분류해야 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분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PP', 'PE' 처음 들어보는 플라스틱을 성상별로 기억하고 외워야 했다.

지금이야 '간병'이라는 말이 보편화 됐지만 당시에는 개념조차 없었다. 간병사업도 시작했다. 충북지역에선 처음 시작되는 일이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못해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전쟁 같은 하루가 매일 반복됐다.

박 이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IMF를 겪으며 실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그때는 실업의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풀던 시기이자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기다. 민주노총할 때는 투쟁하던 조직에 있었는데 자활 사업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다.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실험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이 언급한 그 사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때 시작된 간병사업은 사회적기업 '휴먼케어'가 됐고 집수리 사업은 '미가건축'이 되었다. 재활용 사업은 사회적기업 '미래이엔티'가 됐다. 4~5년이 지나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했다. 상황이 개선되고 익숙해지자 자활사업도 매너리즘에 빠졌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니 제도적 틀에 묶였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많아졌다. 다시 고민이 생겼다. 가만 놔두면 경쟁력 없고 누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 속에서 자활공동체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2006년에 실업극복협의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로 변경했다. 박 이사장은 대표를 맡았다.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생겨난 사회적기업들과 '일하는 공동체'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단을 연결했다. 사회적기업 삶과환경, 우렁각시, 미가건축, 미래이엔티와 함께 이사회를 꾸리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사회적경제 단체의 작은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다. 다시 사업은 확장됐다.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여성인턴사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끌어냈다.

이때 발굴한 경로당 복지지도사 일자리는 지금의 '9988' 사업으로 전환됐다.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독서 지도사, 진로 지도사, 통계 하는 사회조사원 교육 사업 등 수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2007년 6월 아동복지교사 충북지원단의 규모가 150명 정도가 됐다. 나중에는 직접 관할하는 일자리가 300개를 넘었다. 현재 이 사업은 방과후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됐다. 일자리만 커진 만큼 사업도 커지고 영역도 넓어졌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중간 지원조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여성일자리, 아동복지교사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등 4팀으로 운영했다.

사업이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심장엔 과부하가 걸린다. 소통을 위해 피의 순환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아지고 심장은 피로해진다. 제때 피를 보내지 못하기 위해 심장은 무리하게 되고 부하를 감당 못하면 결국 터진다. 분가가 시작됐다. 여성일자리 사업 분야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로 독립했다. 독립적 경영체인 삶과환경, 우렁각시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도 분가했다. 상근자도 줄였다. 행복도시락도 분가했다. 용암동과 봉명동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비대했던 몸집을 줄여 가경동으로 이사했다. 남은 상근자는 겨우 다섯 명. 몸이 홀가분해지니 새로운 상상이 솟구쳤다. 용암동 시절에 꿈꾸고 공부했던 지역화폐에 대한 혈관이 꿈틀거렸다.

사람들과의 연대로 한국은행권 대신 지역화폐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아기를 낳을 때 필요한 산모서비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육아노동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세종대왕님 지폐 없이 자체로 충당하고 노동교환권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교환하고 싶었다. 의료, 교육, 보육,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배포 좋게 의료생협까지 만들어 도전했다.

그래서 동네다

10년 전, 300명 이상의 일자리와 노동을 관리하고 병원까지 관여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었고 풀지 못하는 3차방정식이 있었다.

박 이사장이 던진 의문은 단순했다. 의문이 아니라 그가 내린 원인에 대한 진단이기도 했다. 성화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제 아무리 잘해도 오창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송에 사는 주민이 감기에 걸렸는데 한 시간 걸려 육거리에 있는 의료생협까지 찾아와야 할까? 내가 당장 몸살이 걸려 통증을 못 견디겠는데 가까운 곳에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랴. 제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내 삶의 편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마을에서 내 삶을 편리하도록 필요한 것을 충족하도록 마을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인큐베이팅했던 사회적기업과 연결고리를 풀고 다시 협동조합으로 시작하게 된 연유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했다. 여전히 쉽지 않다. 반찬가게 등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도 많다. 결과는 의욕만큼 나오지 않았다.

박종효 이사장은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지금도 설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주민과의 접촉면을 잘 못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제 박종효 이사장도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로 접어든다. 그래서일까. 그는 "이제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강박적으로 잡혔던 것이 숫자였다.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기업 하나가 생기는 것은 점 하나가 많아지는 것일 뿐 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점이 많아져야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입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회적기업 100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 연결되지 않는 단순한 점 100개는 의미가 없다. 지역의 자원이 연결



되고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 아기공룡 둘리의 마이콜을 닮은 박 이사장은 이것을 '공유경제'라 불렀다. 그리고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이사장이 꿈꾸는, 아니 만들고 싶은 마을은 무엇일까?

그는 "마을에서 경쟁을 통한 생존이 아닌, 협동을 통한 생존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활동이라고 말했다. 정치, 아니 '동네정치'를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정치가 무엇이냐?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아라' 하고 규정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단결하면 우리 동네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동네 정치"라고 밝혔다.

다시 그의 말을 톺아본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나도 헷갈린다. 단체 이름만 보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일하는사람들'. 이것이 되게 애매하다. 용역회사라고 생각할까? 내 삶의 대부분은 실업이나 일자리란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정형화된 틀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고 현실에서 고민해야 했다. 지나고 보니 특별히 잘한 것도 없다. 다만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박 이사장은 자신에 대해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일하는 사람들'의 로고, '즐거운 상상, 그 이상의 변화'란 문구는 귓가를 울렸다.

김남균